

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 인사말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백년대계의 희망을 실천하시는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과 의원스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동하는 봄을 맞아 이러한 여망을 국민의 평화와 안녕으로 완성시켜야 하겠습니다. 봄 햇살이 겨울 눈을 녹이고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깨우듯 뜨거운 정진으로 종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봄을 맞아 열리는 제208회 중앙종회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종단사를 개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진제 법원 대종사를 제14대 종정예하로 종단 최고의 법상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종회에서 일곱 분의 원로위원을 새롭게 추대하여 가르침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종단 사법기관을 지도해 주실 호계원장스님도 선출해 더욱 뜻깊은 종회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 여러분의 덕화로 종단의 큰일들을 원만히 봉행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종회에 불기2560(2016)년 중앙종무기관 결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면밀히 살펴 한해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법 개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사찰 주지스님에 대한 평가내용을 종법으로 반영해 구체화하고 인사고과제도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해외특별교구법은 지난 2011년 미동부특별교구 발족 이후 정체되어 있는 해외사찰 관리와 포교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진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집행부와 함께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은퇴 노령자들의 수행과 정진에 활로를 열기 위하여 많은 점검과 보완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 동안 원로회의의 결의 등을

통해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여러 차례 청원이 있었던 사면복권에 대한 의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종정예하의 유시에 따라 종도들의 화합과 참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종헌종법에 입각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년인 2017년은 우리 국가와 종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와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의 지도자를 바르게 선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종단 역시 오는 10월 제35대 총무원장을 선출합니다. 선출제도와 관련한 각종 의견들에 대해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여러 고민들을 나누어 왔으며, 집행부 역시 세부적인 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온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선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종도들의 중의를 모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모아진 의견에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서 사람들과 천신들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 張大敎網漚人天魚.” 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공동체가 종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절차탁마와 정진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남아있는 총무원장 소임 기간을 제34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종단의 큰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